

# <호주 대학 교육 사례 등을 통한 한류대학 설립의 필요성 및 방향성 검토>

2024년도 해외학술탐방장학 결과 보고서  
TEAM 'KODO'

2022110327 철학과 이현서

2021110321 철학과 박지현

2021110318 철학과 이수안

# 예산 사용 내역

지출	세부 내역	금액(원)
교통비	인천-시드니 비행기 티켓	1,240,000
	시드니-멜버른 비행기 티켓	177,000
	[6/22 Didi] 시티 - 숙소 이동	33,983
	[6/24 DIDI] 뉴사우스웨일즈 파크 이동	14,194
	뉴사우스웨일즈 쿠지비치 이동	13,330
	[6/25 DIDI] 숙소 - 피쉬마켓 이동	12,638
	피쉬마켓 - 시티 이동	10,234
	시티 - 숙소 이동	23,241
	[6/26 DIDI] 숙소 - 공항	10,296
	멜버른 내 이동	100,000
	[6/27 DIDI] 숙소 - 숙소	30,646
	택시 가격(인)	248,562
	버스비	50,000
	페리	50,000
	교통비 총합	4,599,562
숙박비	(6/22-6/25) 시드니 블라바드 호텔	779,688
	(6/25-6/27) Mascot	651,748
	(6/27-6/28) 시드니 블라바드 호텔	230,866
	숙박비	1,662,302
기타	(선물) 책갈피	21,000
	(선물) 코끼리 인형	51,000
	보험료	44,790
	기념품	300,000
총합	전체 사용 비용	8,354,001
	인당 사용 비용	2,851,334

지출	세부 내역	금액(원)
식비	[6/22] Edition Roasters - team Virtue 커피	36,531
	우버이즈 - 네네치킨	35,358
	[6/23] Bohaus 아침	47,915
	점심 - 쌀국수	31,732
	점심 - 스시	18,960
	아이스크림 로얄 코펜하겐	8,069
	대장금	69,949
	리큐랜드 와인	11,382
	맥도날드	13,969
	[6/24] 뉴사우스웨일즈대 커피	11,382
	저녁 costis' fish and chips	23,840
	저녁 부리또	14,598
	[6/25] 아침 커피 BOHAUS	32,512
	피쉬마켓 아점	14,854
	피쉬마켓 아점	43,640
	피쉬마켓 새우 사기	35,815
	마라꼬치	16,497
	프로즌요거트	11,194
	TSG 편의점	15,612
	카페 싱글오서리힐	17,729
	저녁 장	77,096
	[6/26] 점심	13,179
	점심	13,179
	[6/27] 아울렛 남남	22,984
	점심난징 덤플링	40,000
	난징 덤플링	34,214
	마지막 정산(디디 포함)	138,984
	마트, 편의점 (전체 일정동안)	224,173
기타 개인 지출 식비	600,000	
식비 총합	1,675,347	

# 탐방 일정

일자	주요일정
6/21 (금)	<21:00 – 인천공항 출국
6/22 (토)	10:00> 시드니 공항 입국  <11:00 – 13:00> 식사 및 숙소 체크인  <14:00 – 15:00> Team ' <b>Virtue</b> ' 인터뷰
6/23 (일)	<13:00 – 15:00> 퀸즐랜드대 <b>지민정</b> 교수 비대면 인터뷰  <17:00 – 19:00> 한국 식료품점 방문(공그로서리, 코스모스 식품점)
6/24 (월)	<08:30 – 09:30> 뉴사우스웨일즈대 이동  <10:00 – 13:00> '한국어 기초' 수업 참관 및 <b>Dr.Evon</b> 인터뷰  <13:00 – 15:00> 점심 식사 및 한인 학생 Lucy 인터뷰  <15:00 – 17:00> 호주국립대 <b>Dr.Roald</b> 비대면 인터뷰

일자	주요일정
6/25 (화)	<14:00 – 16:00> 호주디자인센터 탐방, <b>CEO Lisa</b> 인터뷰  <17:00 – 20:00> 한식당 '대장금' 방문
6/26 (수)	<07:00 – 08:30> 시드니 -> 멜버른 이동  <10:00 – 11:30> 멜버른대 <b>Dr.Nichola</b> 인터뷰  <14:00 – 15:30> 모나쉬대 <b>Dr.Daniel</b> 인터뷰  <20:00 – 21:30> 멜버른 -> 시드니, 숙소 복귀
6/27 (목)	<11:00 – 13:00> (1) 주시드니한국문화원 (2) JB hi-fi 방문  <13:00 - > 점심 식사 및 휴식
6/28 (금)	<10:00 – 20:30> 시드니 공항 도착 및 인천 입국

# 탐방 기관 방문 사진 / 인터뷰

6/22

## Team 'Virtue' (K-pop dance cover team)

**Q1. (동국대학교 한류대학 개설 관련 설명) 한국학, 더 구체적으로는 한류에 관한 수업이나 학과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A1. 나 자신도 한국학에 관심이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학에서 특히 대중문화 같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9년 전에는 전혀 몰랐지만 현재도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고, 분야를 거르지 않고 학문적으로 다루면 좋다고 생각한다. 춤, 안무, 공연을 할 때 우리는 분석적으로 접근한다. 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대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2. K-pop에 참여하면서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A2. 우선 한국인들은 굉장히 정중하다고 생각한다. 호주인들에게는 쉽게 볼 수 없는 경험을 기억한다. 한국 방문했다가 호주로 돌아오기 위해 공항에 방문했다. 캐리어가 너무 커 옮길 수 없어 캐리어와 씨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도와주었다. 한국인은 정말 착하다. 호주와 달리 서로 술을 따라주는 술 문화도 재미있다. 호주보다 술이 저렴하고 문화가 거대한 것 같다.

**Q3.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식 수업 방식을 본 적이 있는가? 호주와 비교되는 점이 있는가?**

A3. 학생들이 핸드폰을 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는 face-to-face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Teacher과 면대면으로 수업에서 집중을 하지 않아 놓친 부분을 질문할 수 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 장벽이 높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Teacher들은 친근하기 때문에 문자, 이메일을 편하게 보낼 수 있고, 수업에서 배운 모든 내용이 퀴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한다. 튜토리얼은 매우 인기가 좋고, 작은 규모로 운영된다. 튜토리얼 선생님들은 학생들 주위를 돌아다니며 질문을 받는다.

**Q4. 지금까지 virtue 댄스 팀으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는가?**

A4. 호주 전체 댄스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몇 명만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팀이었다. 같은 시간대에 규모가 큰 팀과 경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 탐방 기관 방문 사진 / 인터뷰

6/23

## 지민정 교수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한국학과) 인터뷰

### Q1. 타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인가?

A1. 어렸을 때부터 여러 언어를 접했는지 정말 한국어를 잘한다.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함. 동기가 남다르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다양하다. 호주 백인들은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이 많다. 한국어는 5년, 6년 전에 2개 있다가 현재 하나 올해 다시 열림. 그때부터 고등학생들이 불닭볶음면같은 한국 관련 물품들을 엄청 싸 왔다. 동양 애들도 아니고 백인 호주 애들이 매운 거 먹는 거 보고이게 다 한류의 영향이겠다고 생각했다.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Q2.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원인에 한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A2. 거의 한류 영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BTS나 넷플릭스 등. 1학년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한국 드라마를 보고 궁금해서 왔다고 하고, BTS 군대 갈 때 걱정을 하기도 했다. 보통 남자 그룹 팬이 여자들이기 때문에 여학생이 많다. 최근에는 남학생 중에 여자그룹에 관심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작년에는 블랙핑크가 호주에 한 번 왔었다. 그거 보러 간다고 수업 빠지기도 하는데 신기한 광경이었다. 전날 보고 당일 수업에 오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 가장 큰 동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Q3. 한류가 호주 사회 내에서 한인들이 더 잘 통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한류 확산이 1세대, 1.5세대, 2세대 한인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한류가 타국과의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A3. 특히 1세대들은 이미 다 아는 문화다. 아무래도 한류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대거나 관심이 좋아지면 호주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한국인 종사, 음식점이나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고, 커뮤니티가 커지면 파워가 더 커질 것이다. 한류 파워가 커지면 다른 곳에도 커질 것임. 근데 2세대나 1.5세대를 보면, 어렸을 땐 영어만 쓰니까 몰라도, 커가면서 주변에 한국인이 아닌 애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짐. 한류 영향을 많이 받는 10대로 갈수록 관심도 많이 갖고 스스로도 자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끈끈하게 뭉치는 건 아닌 것 같다.

### Q4. 한류가 발전하기 위해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A4. 지속가능성, 유지가능성이 떨어짐. '재밌어, 맛있어 좋은데 여기까지. 이게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함. 한류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생각을 해봐도 무슨 연구를 할지가 어려움. 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이 좀 뻘한 것 같기도하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제한이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답하게 논의할 거리가 되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아쉬운 건 이런 동기가 오래가면 좋은데 직접적으로 job, reward와 연결되지 않으니 거기까지 못 간다. 100명에서 시작해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아직은 '재밌다'에서 끝나는 느낌이 강하다.

# 탐방 기관 방문 사진 / 인터뷰

## 한국 식료품점 방문

6/23



Gong Grocer



Cosmos 식품점

# 탐방 기관 방문 사진 / 인터뷰

## Dr.Evon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한국학과) 한국어 기초 수업 참관, 인터뷰

### Q1.'한류대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이 있습니까?

A1.저는 한류대학의 설립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류대학을 설립하면 오히려, 재정에 타격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어쨌든 언젠가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한류학'이라는 학위를 위해 많은 돈을 들여 한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한류대학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한류대학은 재앙입니다.

### [수업 참관]

호주의 수업 평가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우리가 참관하기 전 과제 평가가 있었고, Evon 교수는 수업 시간에 평가받은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는지를 물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물었다. '더 열심히 했어야지!'라며 서로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개방된 자세로 성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게 느껴졌다. 이는 정말 학생에 대한 교수자의 관심이라고 느껴졌고 한국 대학에서도 이러한 소통 과정이 존재할 필요가 느껴졌다.

우리는 Evon 교수가 진행하는 '한국어 기초' 수업을 참관했다. 한국어 학습의 사전 작업으로서 한국의 역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려 말에서 조선초기까지의 역사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Evon 교수의 연구 실적이 한국 불교와 연관된 탓인지, 수업의 내용은 불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세종대왕은 불교였다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우리는 놀라워 했다.)

수업 내용도 좋았지만, 수업 분위기도 좋았다.학생들이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내는 분위기였다. 수업이 끝난 후, 20명 가량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학생들에게 왜 한국학 전공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았는데, 한 학생의 대답이 기억이 남는다. 그 학생은 부모님이 배우 이종석을 좋아해서, 자신도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한국학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한류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어떤 학생과 한국의 주입식 교육 문화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류대학 설립과 수업 설계에 대한 조언도 얻었다. 그 학생은 만약, 동국대학교에서 '한류대학'을 설립한다면 '튜토리얼'이라는 수업방식을 꼭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튜토리얼은 배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만을 주고 받는 수업 시간이다. 호주 내의 대학은 거의 모든 강의에 튜토리얼 수업이 포함되고, 호주의 학생들은 튜토리얼 시간을 꼭 필요로 한다고 했다. 탐방과 별개로 수업참관을 했던 것은 외국 학생들과 서로 다른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도 같다. 뜻깊었다.



6/24

# 탐방 기관 방문 사진 / 인터뷰

## Lucy (한인 유학생,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인터뷰

● Q1.호주에서 한류의 인기를 어떻게 실감하나요.

A1.친구들 중에 엑소나 bts 같은 한국 아이돌 팬들이 몇몇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항상 저에게 '한국 콘서트 너무 가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 Q2.한국 문화를 접한 호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A2.제가 직접 요리한 한식을 친구들한테 준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겪어 본 적이 없어서 먹기 두려웠는데 너무 맛있다.'고 반응했어요. 그 뒤로 한식이 맛있다고 기숙사 친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몇 달 내내 한식 파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웃음) 거의 기숙사 수석 셰프였어요.

● 6/24

● Q3. 한류 인기가 높아지면서 호주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나요? 한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A3. 사실 시드니는 예전부터 한국에서 온 이민자가 많아서요. 한인타운도 원래부터 잘돼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접하기 이미 쉬웠던 상황이라.. 크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주 내에서 한인들의 인식은 딱히 좋고 나쁘게 없어요. 호주 자체에 아시안 계열의 사람이 많아서 인종 차별도 없고요. 그냥 예의 바르다. 친절하다 이정도 느낌?

● Q4.앞으로도 한류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거라고 생각하나요?

A4. 쉽사리 말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어떤 이유에서 한류가 인기를 끌게 된 건지 명확하진 않잖아요. 제 생각엔 어느 순간 알고리즘처럼 뜬 게 아닌가... 뭐 앞으로 외국인들의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가 계속 나온다면 전망이 좋지 않을까요?



# 탐방 기관 방문 사진 / 인터뷰

## Dr.Roald (The Austarlian National University, 한국학과) 인터뷰

Q1. 한국에 관해 최근 관심을 가지는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

A1. 나는 한국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음악을 생산, 모으는 데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MP3, CD, DVD, 바이닐 등,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쓰이는 방식들이 있다. 그 자체로는 그닥 흥미롭지 않지만,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Q2. 한류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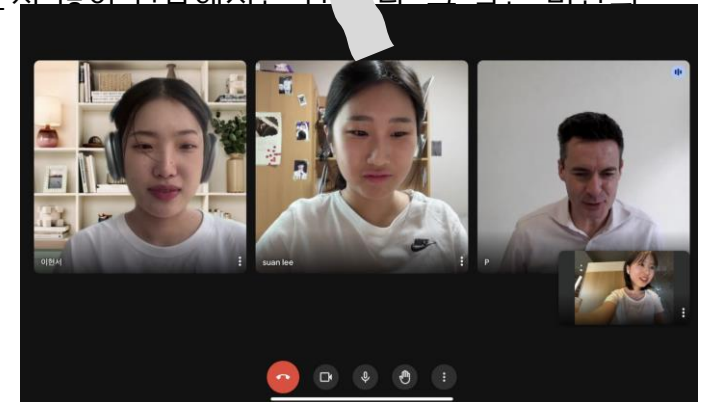
A2. 문화적 근접성에 대한 글이 있었다. 예컨대 일본이나 중국에 한국 제품을 파는 것은 문화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생각에 반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글이다. 미국에서도 점점 한류 상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근접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많은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근접성을 창출할 수도 있다. 한국 제품을 많이 소비하면 확실히 한국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한국 전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관심을 갖는 학생은 있어도 한국 인류학 박사과정생이나 석사과정생은 거의 없다. 이 과정에서 K-pop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3. 명동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돌처럼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가?

A3. 한국에는 훌륭한 순응감(sense of conformity)이 있다. Conformity란 일종의 안전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주는 한국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입는지 많이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비판의

Q4. 한국에서 새로운 교수법을 만든다고 할 때 적용할 만한 독특한 호주의 교수법이 있는가?

A4. 효과적인 교수법은 중요한 이야기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메라(를 통한 교육)은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은 원형 책상이 있는 방 뿐이다. 여전히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법이다. 한국도 변화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향식 강의 수업에서, 학생은 자신의 것을 공유하지 못할 때, 즐기기 어렵다고 느낀다.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소유하는 것이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법이다. 물론 이것이 매번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이 자신에게 관심갖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탐방 기관 방문 사진 / 인터뷰

## Lisa (Australian Design Centre, CEO) 인터뷰

**Q1. 자기소개 및 호주 디자인 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1. 호주 디자인 센터의 대표이자 아트디렉터입니다. 센터는 시드니에 위치해 있지만 호주 전역에서 공예 및 디자인 실습을 지원합니다. 시드니에 기반을 둔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호주 다른 주와 전국에 기반을 둔 아티스트와도 협력하는 곳입니다. 호주의 다른 예술 단체 및 대학과 많은 파트너십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전역을 순회하는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천명에 가까운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Q2. 시드니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옷칠'에 관한 전시에 호주디자인센터가 협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A2. 네 정말 아름다운 전시였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작업해온 유리공예가가 있습니다. 그가 서울에서 작업하는 유리 공예가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콜라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관행을 알게 되어 지식을 풍부하게 만드는 환상적인 기회입니다.

**Q3. 예술 문화 센터의 장으로서, 예술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A3. 예술은 디자인 측면에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음식과 같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웃음) 예술에 참여할 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Q4. 한국 예술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A4. 호주의 예술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 한국의 예술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국가의 예술은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하고 싶지 않지만 도자기 같은 한국 예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되었고, 흥미롭습니다.



# 탐방 기관 방문 사진 / 인터뷰

한식당 '대장금'



제육 정식

순두부 찌개



오징어볶음 정식

6/25

# 탐방 기관 방문 사진 / 인터뷰

## Dr.Nichola (The University of Melbourne, 한국학과 학과장) 인터뷰

### Q1. 멜버른대 한국학과에 계시며 느낀 한류의 영향에 관해 해줄 말이 있는가?

A1. 셀러브리티 스터디도 있고, 젠더 스터디도 있고 한류는 충분히 학문으로 볼 만 하다. 호주 대학에서도 돈이 되니까 수업 개설을 한다. 멜버른대에서 한국학 과정을 처음 개설할 때 뉴질랜드까지 다른 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과목 목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했다. 대중문화, 즉 한류 수업에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 1학년까지는 한류때문에 한국어를 배운다는 말이 딱 맞다. 그런데 동기부여가 강하지 않아서 오래가지 못한다. 한국어는 문법 판단 능력이 없고 규칙을 정확히 배우지 못하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 한국어 학습자 동기 조사를 해봤을 때 학생 중 일부는 한류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아시아계여서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다. 취직을 목적으로 배우는 학생도 있다. 이 건 호주뿐 아니라 다 똑같은 거다 한국어 학습 동기 1위가 한류는 아닐 것이다.

### Q2. 한류대학 설립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A2. 한류도 인문대인데 무엇이 다른가? 어떤 학과가 있는가? 호주에서는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내년 3월에 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미 올해 1월까지 수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이른테면) 수업을 개설할 때 대중 문화 수업이 있으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과 겹칠 것이다. 우리 학교는 겹칠 수 있는 내용의 비율이 중요하다. (호주 대학은)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엔터테인먼트, 즉 행정 면에서는 경영이나 행정학과에 있을 것이고, 대중 문화도 그렇고 춤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냐. 무엇이 겹치는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류대학으로 이사시킬 것인지, 모집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영어 강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 Q3. 튜토리얼 수업에 관한 생각이 궁금하다. 튜토리얼 수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A3. 어떤 강의인지, 튜토리얼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인기있는 튜토리얼 강의 중 남북한 관계에 관한 수업이 있었다. 학기 말이 되면 수업 시간에 각각 미국, 북한, 중국 입장을 대변하여 토론을 한다. 근데 학생들은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낯설고 불만이 많을 것이다. 나도 서강대에서 수업하다가 호주에 와서 처음 수업을 했을 때 '망했다.' 튜토리얼에서 활용적인 걸 한다고 해도, 무엇을 활용할지가 문제이다. 뭘 알아야 활용을 할 수 있다.

### Q4. 한류대학 설립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A4. 만들겠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 전체에 대학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학생들도 20년, 30년 후에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유학생들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도 한국 대학교를 나왔으니 여기엔 불만이 없다. 난 한국 대학교에 만족한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의 졸업장을 줄 것인지, 한류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 탐방 기관 방문 사진 / 인터뷰

## Dr.Daniel (The University of Monash, 한국학과) 인터뷰

**Q1. 모나쉬 대학의 한국학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1. 우리는 4명의 전임 교수진과 8명의 한국인 교직원입니다. 초급, 중급 등 8개 단계의 한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루시안 브라운'이라는 교수는 사회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앤드류 잭슨'은 한국사, 한국 종교 등을 연구합니다. 조하예 교수는 호주 내 한국인 이주자와 호주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저희 학과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5년 핵심 지원금을 2년째 받고 있고, 저희 학과에는 K-pop 이나 한국 드라마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이 많습니다.

**Q2. '한류대학' 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2. 한류학은 한국학의 한 측면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유행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 유행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은, 단계적으로 그 유행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류의 인기가 미래에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류 대학'이라는 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차라리 더 큰 틀에 넣는 게 낫습니다. 한류만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과 언론학을 융합하는 식으로요.



**Q3.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인 한류의 인기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A3. 대학 시설이나 전공 시설 같은 제도적인 면에서 한류의 인기에 의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한류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인기는 아주 높아졌다고 봅니다. 지금이 한국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가령 일본어가 인기 있었던 80년 대 무렵, 일본 기업들은 일본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교수진을 설립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LG나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Q4. 모나쉬 대학의 한국학과 학생들은 어디로 취업하나요?**

A4. 저희 학과는 호주에 지사를 둔 다양한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한국 영사관에서 인턴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 탐방 기관 방문 사진 / 인터뷰

주시드니한국문화원 / JB HI-FI



주시드니한국문화원 정문



JB Hi-Fi, K-pop section

6/27

# 탐방 후 느낀 점

## 현서 Hyeonseo

우리 대학에서 새로운 학과를 개설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한류학과'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담론은 부불가결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학술탐방제도는 단순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해야 할 학생들에게 보일 최적의 캔버스 였던 것 같다. 특히 이번의 탐방은 연구자들이 주제를 사유하는 방식을 가장 가깝게 바라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나눌 수 있던 것에서 큰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 수안 Suan

동국대학교의 해외학술탐방장학 제도를 통해 호주에서 '한류대학 설립 정당성 및 방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탐방 주제와 별개로 호주같은 다인종국가에 와본 것이 처음이라 탐방 자체가 재미있는 체험이 됐다. 호주는 다양한 문화가 섞인 이민자들의 나라여서 먹을 것도 다양했고, 건축물들의 양식도 다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호주의 호주의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교수님들과의 인터뷰이다. 외국에서 외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영어로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는다. 특히 나는 진로로 언론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탐방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구하고, 실제로 인터뷰했던 경험은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인터뷰 과정에서 느낀 부족한 점이나 잘했던 점들을 기록해 두어, 향후 언론인이 됐을 때 더 나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삼으려 한다

## 지현 Jihyun

K-pop, 한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탐방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살아왔고, 매체에서 모두 한류의 영향을 보도하니 큰 영향이 있다고 어렵 뜻이 생각도 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살펴본 바 외국에서의 한국 물품 소비가 느는 것, 외국인들이 K-pop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물론 연관은 있기가 하겠지만 한류와의 밀접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교수들은 하나같이 지속가능성, 한류대학의 비전을 말했다. 프로젝트 전반을 돌아보자면, 낙관적이었던 전망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이와는 별개로 시야가 확장됨을 느꼈다. 한국이 얼마나 좁은지, 내가 모르는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매 순간 경험하는 일주일이었다. 또, 교수들과 인터뷰하며 교수들이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위한 길을 생각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호주에서 대학 강의를 듣고, 수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외국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도입이 현재 대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위협천만하고 재미있는 일주일을 보냈다

# 탐방을 통한 나의 발전 계획

## 현서 Hyeonseo

개인적으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욱 늘었다. 특히 기획자의 꿈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 하나의 경험이 한 개인의 사상을 얼마나 다채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큰 깨달음 얻었다. 또한 영어는 곧잘 하니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나아가, 현장에서 마주하였던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에서 의사소통의 힘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더욱 많은 경험, 언어 공부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고 돌아오게 된 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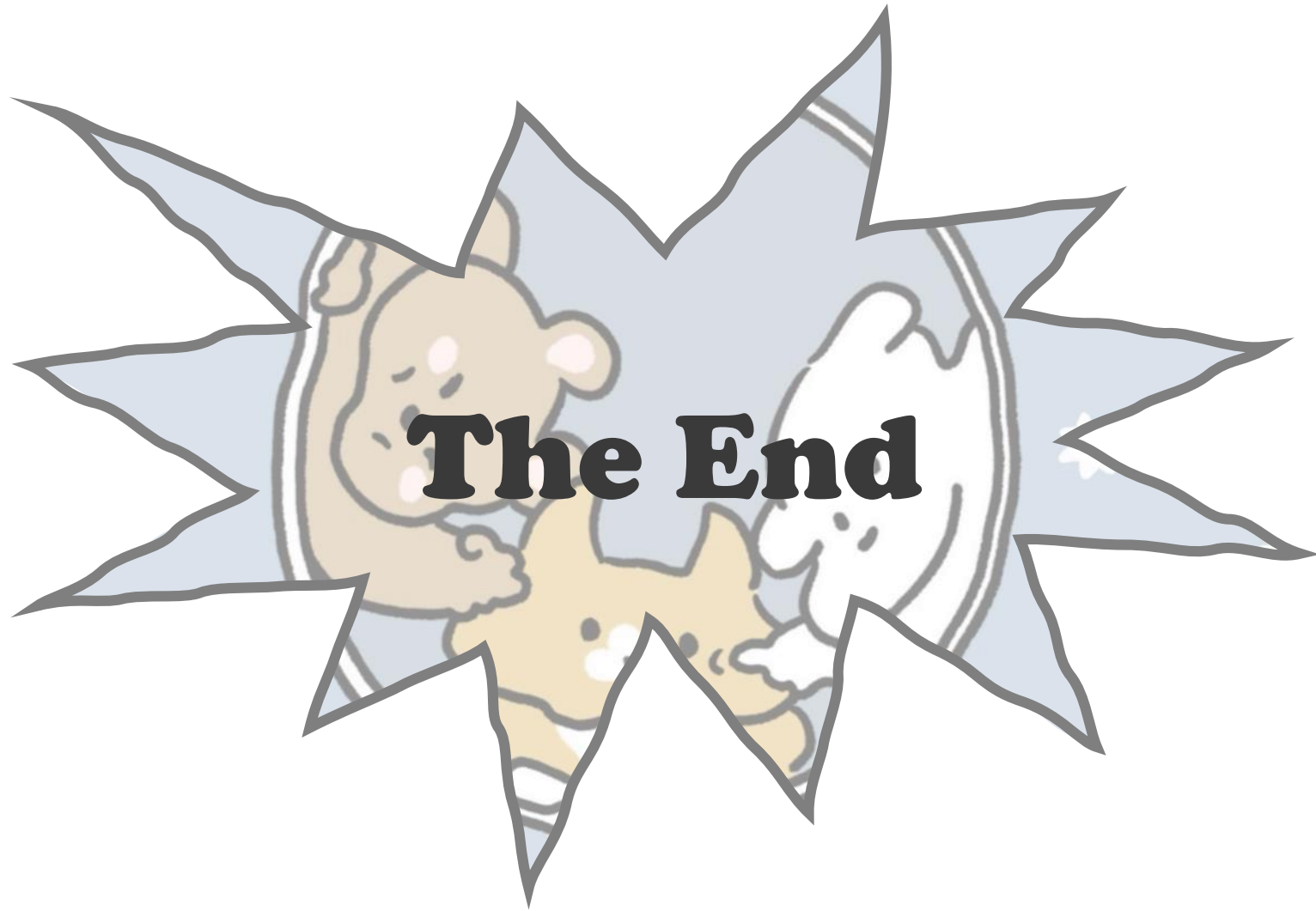
## 수안 Suan

그동안은 '영어를 잘하면 장점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다. 그런데 호주를 다녀오고 나니, 영어를 잘하면 시야가 확실히 넓어지겠다는 것이 체감이 됐다.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더 영어를 잘했다면, 인터뷰이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을텐데'하며 아쉬웠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려 한다. 영어로 된 학술 자료를 읽고, 영어 토론 모임에 참여해서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 능력을 기르려고 한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만들어야겠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나 국제 봉사활동에도 참여해서 더욱 폭넓은 경험을 쌓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며, 나만의 특별한 커리어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는 진로가 언론인인데, 나중에 특파원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 이런 경력들을 쌓아 놓으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 지현 Jihyun

호주에 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도때도 없이 했던 생각은 단연 '영어'였다. 기초적인 영어 실력으로도 음식을 주문하고, 물건을 사고, 숙소를 체크인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음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건을 환불할 때, 숙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갖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나의 영어 실력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끼며 영어를 조금 더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 아쉬움을 자양분 삼아 회화 공부를 할 것이다. 학술 탐방은 도전이었다. 짧은 시간에 알 찬 프로젝트를 구상, 계획해야 했으며 계획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해야 했다.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다. 치열하게 도전하여 성공하고, 더 큰 세상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다. 더불어, 호주 대학에서 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이 관심 가지는 '한류'를 주제로 교양 강의를 구성해볼 것이다.





**The End**